

##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연구\*

홍기표\*\*

### 국문요약

본고는 그간 제주 역사학에서 입도조(入島祖)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거의 없던 점에 착안하여 처음 시도한 글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고려사』(고려사절요) 및 『조선왕조실록』 등의 정사류 및 여타 사료에 그들과 관련한 기사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가문에 전하는 가승 및 족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입도조의 입도연대 및 입도지역 등 가급적 ‘사실’에 기반을 둔 내용만 인용하며 서술을 전개하였다. 입도조의 학덕, 교화 등 그들이 제주에 끼친 영향 등은 객관적으로 고증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여말선초 제주에는 육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정착하여 후손을 남겼다. 이들을 제주에서는 입도조라 부른다. 입도조란 본관이 제주인 고, 양, 부 삼성(三姓) 이외의 타 성씨가 제주 섬 이외의 지역 및 국가에서 제주로 처음 들어와 정착하여 살며 후손(혈족)을 남기고 그들이 대대로 제주에 거주하며 가문을 이루었을 때의 시조이다.

---

\* 본고는 제주학회와 국회의원 오영훈이 주최한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2017.06.23.)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토대로 수정, 보충하여 작성함.

\*\* 전 성균관대 사학과 겸임교수

여말선초 제주에 들어와 입도조로 조명되는 인물은 대략 16명으로 파악되며 다음과 같다. 광산김씨 김윤조(金胤祖), 풍기진씨 진계백(秦季伯), 제주 좌씨 좌형소(左亨蘇), 김해김씨 김만희(金萬希), 청주한씨 한천(韓蕝), 양천 허씨 허손(許遜), 경주이씨 이미(李美), 신천강씨 강영(康永), 순흥안씨 안득경(安得敬), 남양홍씨 홍윤강(洪允康), 경주김씨 김검룡(金儉龍), 나주김씨 김인충(金仁忠), 원주변씨 변세청(邊世淸), 진주강씨 강윤희(姜允熙), 연안김씨 김안보(金安寶), 연주현씨 현사경(玄思敬).

이들은 대체로 고려 공민왕대, 조선건국 전후, 조선 태종대에 집중적으로 입도하였으며 그 지역은 대부분 제주섬 북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입도조의 입도 이유는 첫째 유배인, 둘째 정치적 망명, 셋째 은둔 처사, 넷째 공무수행 후 정착의 네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했다. 유배인과 정치적 망명은 대부분 타의에 의해 먼 변방 제주로 입도한 경우이다. 이에 반하여 공무수행 후 정착과 은둔 처사형의 삶을 위한 입도는 제주에 스스로 선택하여 들어온 자의적 입도로 이해했다.

**주제어:** 여말선초(麗末鮮初), 제주(濟州), 입도조(入島祖), 유배인(流配人).

## I. 머리말

여말선초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뜻한다. 왕조교체라는 정국의 대변동이 발발한 때이다. 이때 제주에는 육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정착하여 후손을 남기며 제주민으로 변화하여 갔다. 이들을 제주에서는 입도조(入島祖)라 부르며, 오늘날 자기 성씨들이 제주에 자리 잡게 된 연원을 밝히며 존경을 표하고 있다.

가문에서는 가승(家乘) 및 족보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선양 작업에 초점을 맞춰 미화(美化)와 근거가 부족한 추정 사실을 적시하지만, 정착 역사학에서는 그들과 관련된 사실을 사료를 통해 객관적

으로 조명하려는 입장 때문에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고도 이로 인해 어려움을 제법 겪었다. 다시 말해 제주 입도조들에 대해 『고려사』(고려사절요) 및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검수 작업을 시도하였지만, 한천(韓蕝)과 강영(康永)의 경우만 일부 사례 등장할 뿐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선 용례가 등장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여말선초 각 개인문집에서조차 그들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지 않아 과연 객관적 조명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결국 가문에 전하는 가승 및 족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입도조의 입도연대 및 입도지역 등 가급적 ‘사실’에 기반을 둔 내용만 인용하며 서술을 전개하였다. 입도조의 학덕, 교화 등 그들이 제주에 끼친 영향 등은 객관적으로 고증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여기에 특정 본관의 성씨라도 파조(派祖)가 각각 달라서 같은 본관의 성씨에서 각각 다른 입도조를 내세우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 경우 여말선초라는 시기상 전제 때문에 파조가 달라도 최초 입도한 본관의 성씨 인물만 입도조로 소개하였다.

이런 여러 불합리한 전제를 바탕으로 본고를 진행하게 된 데는 그간 제주 역사학에서 이런 주제의 논고가 없었다는 점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해되기는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역사학에서의 소명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에 본고는 입도조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정립하고, 여말선초 제주입도조로 알려진 인물들을 소개하며 그들에 대한 간략한 정리 작업을 시도하련다. 또한 그들의 입도연대 및 지역 등에 대한 분석과 입도이유를 중심으로 그들에 대해 유형별 분류 작업을 이루려 한다. 이리하여 특정가문의 입도조 1인 탐구가 아닌 제주 역사에서 이들 입도조들 전반에 대한 분석과 이들이 당시 제주사회와 어떤 의미로 연계될 수 있었는지 등을 밝히려 한다.

## II. 입도조의 개념과 제주 입도조 현황

### 1. 입도조의 개념

오늘날 성씨의 연원을 밝히는 선조에 대해서는 여러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 파조(派祖), 입도조(入島祖) 등이 그것이다. 시조는 한 가계의 맨 처음이 되는 조상, 즉 성씨를 최초로 사용한 인물을 일컫는다. 중시조는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을 뜻한다. 예컨대 경상남도 김해(金海)를 본관으로 하는 김해김씨는 수로왕(首露王)을 시조로 하며, 그의 제12대손인 김유신(金庾信)을 중시조로 삼고 있다. 파조는 한 가문에서 고관대작이나 유명한 학자로서 이름을 널리 알린 조상을 말한다. 조선후기 동성부락인 집성촌(集姓村)이 형성될 때 지역적 연고를 중요시하여 입향조(入鄕祖)를 파조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파조는 문중의 중심인물이고, 파명(派名)은 파조의 시호·호·관직·후손집거지 등을 상징화하여 붙인다. 예컨대 ‘문정공파’, ‘익재공파’, ‘판서공파’, ‘수산파’ 등이 그것이다.

입도조는 말 그대로 ‘섬에 (처음) 들어온 조상’을 뜻한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 섬에 들어와서 정착한 최초의 조상을 제주에서는 입도조라 불렀다. 다시 말해 제주의 토착 성씨인 고씨, 양씨, 부씨를 제외하면 제주의 성씨는 모두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성씨들이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삼성 이외의 성씨 후손들이 제주에 최초로 정착한 자신들의 선조를 입도조라 칭하였다.

하지만 입도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정밀한 개념 규정 없이 사용돼 온 측면이 없지 않다. 그리하여 종종 입도조를 누구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제주에 처음 들어와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살다가 육지로 다시 돌아간 경우, 그 부인과 자식은 제주에 그대로 남아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갈 때 육지로 돌아간 이와 그 자식

중 누구를 입도조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실질적으로 이곳에 정착했고 그 묘소가 이곳에 존재하는 자식을 입도조라 할 것인지, 비록 이곳에 묘소는 없지만 제주에 처음 들어와 가족을 구성하여 후손을 남긴 인물을 입도조로 볼 것인가의 논란이다.

예컨대 수안(遂安)이씨대중회(<http://www.suanlee.org/>)에서는 이와 같은 입도조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현종 초인 1660년대 이지달(李枝達)은 서인과 남인의 예송논쟁에 휘말려 대정현 감산촌으로 유배되었다. 이지달은 아들 이시호(李時皓)와 함께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이시호가 제주에서 오씨 가문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이보운(李寶雲)을 낳았다. 유배가 풀리자 이지달과 아들 이시호는 황해도 수안군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손자인 이보운은 그대로 제주도에 정착, 가문을 형성하여 오늘날 안덕면을 중심으로 수안 이씨 세거지를 이루었다.<sup>1)</sup> 이 때문에 수안이씨 입도조를 그간 이보운으로 삼았지만, 제주중친회에서는 묘소는 없지만 제주에 처음 들어와, 결혼하고 후손을 남긴 이시호를 입도조로 보아야 한다고 입장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후손들은 오씨 부인과 아들 이보운이 묻힌 곳을 입도 선영이라 하고, 이곳에 묘소는 없지만 ‘입도시조이공시호추모비(入島始祖李公時皓追慕碑)’를 세워 이시호를 입도조로 추념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현시점에서 입도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려 한다. 입도조란 본관이 제주인 고, 양, 부 삼성(三姓) 이외의 타 성씨가 제주 섬 이외의 지역 및 국가에서 제주로 처음 들어와 정착하여 살며 후손(혈족)을 남기고 그들이 대대로 제주에 거주하며 가문을 이루었을 때의 시조이다.

## 2. 제주 입도조 현황

여말선초에 제주에 들어와 입도조로 조명되는 인물은 대략 16명

1)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1981.

으로 파악된다.<sup>2)</sup> 본고는 여말선초를 대략 고려말 공민왕 즉위 후인 1350년부터 조선초 세종대인 1450년까지 100년간으로 삼았다. 고려 멸망, 조선 건국이라는 왕조 교체 과정에서, 또는 조선 건국 직후 왕자의 난(1398, 1400) 및 태종 대 집권 강화 차원에서 많은 인물들이 유배 또는 정치적 망명의 이유로 제주에 들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세조 때의 계유정난과 연산군에서 명종까지 이어진 사화 때문에 제주에 유배된 인물 중 본인 및 그 가족들이 제주에 정착하며 입도조로 자리매김 된 경우도 많다. 예컨대 오석현(군위 오씨/ 1456), 이유춘(벽진 이씨/ 1480), 이만수(전주 이씨/ 1498), 이성우(성주 이씨/ 연산군 대), 조방보(한양 조씨/ 1519), 이세번(고부 이씨/ 1520), 윤빈(파평 윤씨/ 1538) 등이 그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차후 기회를 보아 별도로 소개하기로 한다.

이제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16명을 소개하고, 그들 개개인 별로 입도 연대 및 지역과 그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해설한 후 그들 전반에 대해 유형별 분석을 이루려 한다.

- (1) 김윤조(金胤祖), 광산(光山) 김씨
- (2) 진계백(秦季伯), 풍기(豊基) 진씨
- (3) 좌형소(左亨蘇), 청주(靑州) 좌씨(본관 변천 靑州→靑州→濟州)
- (4) 김만희(金萬希), 김해(金海) 김씨
- (5) 한천(韓蕝), 청주(靑州) 한씨
- (6) 허손(許遜), 양천(陽川) 허씨
- (7) 이미(李美), 경주(慶州) 이씨(익재공파)
- (8) 강영(康永), 신천(信川) 강씨

---

2) 여말선초 입도조를 16명으로 한정 해설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연구에 의해 증감이 있으리라 전제한다. 또한 참고자료는 담수계의 『증보탐라지』(1953), 김봉현의 『제주도유인전』(국서간행회, 1981), 홍순만의 「제주의 입도조와 분묘」(나주김씨제주종친회, 2004),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김찬흡의 「각 성씨 관향별 낙향 유래와 분파 이름」(『제주특별자치도 113호, 2009)등이다.

- (9) 안득경(安得敬), 순흥(順興) 안씨
- (10) 홍윤강(洪允康), 남양(南陽) 홍씨
- (11) 김검룡(金儉龍), 경주(慶州) 김씨
- (12) 김인충(金仁忠), 나주(羅州) 김씨
- (13) 변세청(邊世淸), 원주(原州) 변씨(훈련공파)
- (14) 강윤희(姜允熙), 진주(晉州) 강씨(은열공파)
- (15) 김안보(金安寶), 연안(延安) 김씨
- (16) 현사경(玄思敬), 연주(延州) 현씨

(1) 김윤조(金胤祖), 광산(光山) 김씨

① 가계: 시조 김흥광(金興光)의 17세손. 증조부 김수(金須, 영암 부사, 1270년 삼별초 입도를 막기 위해 제주에 들어왔다 전사한 고려 관군). 부친 김광재(金光載). 형 김흥조(金興祖).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368년(공민왕 17). 구좌 김녕리→ 한동리.

③ 입도경위: 1368년(공민왕 17) 신돈(辛旽)이 집권하여 국정을 어지럽게 하자 그의 형인 군기감 김흥조는 김정(金精)·조사공(趙思恭)·유사의(兪思義)·김제안(金齊顔)·김귀보(金龜寶)·이원림(李元林)·유희종(尹希宗) 등과 더불어 신돈을 제거하고자 하다가 모의가 탄로나 신돈이 보낸 하수인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김윤조는 형의 참화를 보고 곧 개경을 떠나 제주도로 낙향.

④ 특이사항: 조선후기 학자 명도암 김진용(金晉鎔)은 그의 9세손.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화산악(花山岳)에 그의 묘소 소재.

(2) 진계백(秦季伯), 풍기(豐基) 진씨

① 가계: 시조 진필명(秦弼明)의 18세손. 자(字)는 사원(思遠).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371년(공민왕 20). 애월 애월리.

③ 입도경위: 고려 공민왕 때의 권신(權臣) 홍륜(洪倫), 최만생(崔萬生) 등과 의견이 맞지 않아 화가 미칠 것을 미리 알고 가족을 이끌고 제주목 애월리에 피난 입도하였다. 입도 당시 제주에는 원의 목자 석가을비(石加乙碑) 등의 소란이 극심하였는데 1374년(공민왕

23) 최영장군이 목호난을 평정한 후 최영이 친족인 그를 방문하여 피난생활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귀경을 권하였으나 국정의 혼란과 불의가 만연함을 한탄하면서 그대로 남았다. 최영은 만호 김종광을 시켜 집을 지어 주고 면포 7단과 군량으로 가져왔던 양곡 30석 등을 지원하여 생계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고 전함.

④ 특이사항: 이색(李穡)의 문인. 최영(崔瑩)의 친족. 우참찬(右參贊) 역임.

(3) 좌형소(左亨蘇), 청주(靑州) 좌씨(본관 변천 淸州→濟州)

① 가계: 시조(중국 원나라에서 입국).

② 입도연대 및 지역: 고려말, 구좌 한동리(좌가장)

③ 입도경위: 1273년(원종 14) 여원연합군이 삼별초를 평정한 후 원은 제주도에 탐리총관부를 설치하여 목마장을 세웠다. 그는 목마장 감목관으로 입도하였다. 그 후 최영 장군이 1374년(공민왕 23) 8월 목호의 난을 진압한 후 후손들은 고려에 귀화하였고, 이때 후손 좌한기(左漢棄)는 구좌 한동리에서 한경 두모리로 이주하여 정착.

④ 특이사항: 원 천관시랑(天官侍郎) 역임.

(4) 김만희(金萬希), 김해(金海) 김씨

① 가계: 중시조 김유신(金庾信)의 38세 직계손. 일명 김경흥(金景興). 자(字) 여운(汝雲).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392년(태조 1). 애월읍 괏지리.

③ 입도경위: 고려 충정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좌헌납(左獻納)이 되었다. 공민왕 때 대언(代言)으로 자제위(子弟衛)를 총괄하였고<sup>3)</sup>, 벼슬이 삼중대광도첨의좌정승(三重大匡都僉議左政丞)에 이르렀다.

---

3) 담수계의 『증보탐라지』 및 김봉현의 『제주도유인전』에 근거하나, 『고려사』(권24, 열전37, 김흥경) 등에는 공민왕 때 대언으로 자제위를 총괄했던 인물은 김흥경(金興慶)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는 공민왕 시해 사건 관련 우왕 초기에 언양으로 유배되었다가, 처형당한 인물이다. 따라서 조선초 제주에 내려온 김만희(김경흥)와는 거리가 먼 인물인데, 김만희의 관력(官歷)에 소개되어 있는 점이 의문스럽다.

고려말 정국이 혼란스러워지자 기꺼이 종적을 감추고 고향으로 물러났다. 1392년 조선 태조가 즉위하자 고려의 유신(遺臣)들을 불렀는데, 그는 절의를 지키며 나아가지 아니하자 제주(濟州)에 유배 보냈다. 처음 애월포(涯月浦)에 도착, 자손들이 이어서 정착.

④ 특이사항: 제주 삼절신(三節臣). 바다를 건너올 때에 노래를 지어 읊었다. 요순의 시대 아득한데(唐虞世考兮)/ 나는 어디로 돌아갈까(嗟余焉歸)/ 원컨대 백이숙제를 따라(願從夷齊兮)/ 고사리나 캐러가야지(簿言採薇). 이어서 섬의 중앙에 솟아 있는 한라산을 조망하면서 시를 지어 읊었다. 한라산이 어찌 서산과 같으리오(擎山何以古西山)/ 바다가 뽕밭으로 변했으니 그만둘 수밖에(海變桑田人已矣)/ 고죽군의 맑은 바람 아득하여 따를 수 없으니(孤竹淸風遠莫攀)/ 문밖에 나가 한라산에나 오를 수밖에(出門欲往小瀛寰).<sup>4)</sup>

(5) 한천(韓蕝), 청주(淸州) 한씨

① 가계: 시조 한란(韓蘭)의 11세손. 호 서재(恕齋).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392년, 표선 가시리.

③ 입도경위: 공양왕 때 관직이 예문관대제학에 이르렀다. 1371년(공민왕 20) 경상도도순문사에 임명되었고, 공양왕 때 판개성부사가 되었다. 1392년 공양왕이 원주(原州)로 축출되니 그는 제주(濟州)에 유배되었다.<sup>5)</sup> 지금 정의현의 옛터에 서당(書堂) 옛터가 아직도 존재.

④ 특이사항: 제주 삼절신(三節臣).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의 「서재한공유허비(恕齋韓公遺墟碑)」.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그의 묘소 소재.

4)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일본)국서관행회, 1981, 50쪽.

5) 한편 한천의 제주 입도시기가 널리 알려진 1392년 고려 멸망과 함께하여 입도한 것이 아니라 1400년(정종 2)~1403년(태종 3)에 입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홍기표, 「여말선초 청주한씨 제주 입도조 한천 재조명」, 『탐라문화』 (55), 2017.).

(6) 허손(許遜), 양천(陽川) 허씨

① 가계: 시조 허선문(許宣文)의 15세손. 부친 대제학 허흠(許欽). 형 허징(許徵, 두문동 72현).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392년(태조 1), 구좌 종달리.

③ 입도경위: 밀직제학(密直提學)을 지낸 고려유신으로 조선 건국 시 신왕조를 거부하고 제주도에 낙향, 은거.

④ 특이사항: 부친과 형 모두 불사이군의 고려절신(高麗節臣).

(7) 이미(李美), 경주(慶州) 이씨 익재공파

① 가계: 시조 이알평(李謁平)의 55세손. 자(字) 중인(仲仁), 호 서재(西齋). 형 이신(李伸) 제주도안무사(1420).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401년(태종 1).

③ 입도경위: 진사시에 급제하고 관직이 교리(校理)에 이르렀다. 고려가 멸망하자 물러나 은둔하며 독서하였다. 조선 태종 때 교리로 임명하여 불렀는데 불응하자 제주 향리로 벼슬을 낮추어 유배 보냈다. 도해(蹈海) 시 1수가 전한다. 그 형인 이신(李伸)이 안무사로 제주에 부임하였을 때 의전(義田)을 따로 둔.

④ 특이사항: 제주 삼절신(三節臣). 서귀포시 하원동 영실 삼장굴(三藏窟)에 그의 묘소 소재. 전하는 시는 다음과 같다. 바다섬(제주)이 비록 누추하다 하나(海島雖云陋)/ 이 나라 영토 아닌가(莫非率土浜)/ 여기에서 옛 임금 바라보니(此中胆旧日)/ 두 임금 섬길 수 있겠는가(肯肯二心人)<sup>6)</sup>.

(8) 강영(康永), 신천(信川) 강씨

① 가계: 중시조 강지연(康之淵)의 8세손. 부친 판도판서(版圖判書) 강윤휘(康允暉). 백부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 강윤성(康允成).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사촌 오빠.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402년(태종 2). 조천 함덕포.

6)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일본)국서간행회, 1981, 51쪽.

③ 입도경위: 1398년(태조 7) 이방원(李芳遠)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신덕왕후 강씨의 두 왕자 이방번(李芳蕃), 이방석(李芳碩)을 살해하자 왕자들의 골육상잔에 환멸을 느끼고 전라감사를 사임(파직)하고 제주도로 유망(유배).<sup>7)</sup>

④ 특이사항: 공민왕대 흥건적 침입시 격퇴한 공로로 공신 서훈. 우왕대 최영(崔瑩) 및 나세(羅世) 등과 왜구 격퇴.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봉소동에 그의 묘소 소재. 그의 묘소는 함덕 지경에 수백 년 간 실묘(失墓) 상태로 있었으나, 1950년 밭을 갈던 농부가 지석을 발견했고, 감정 결과 그의 묘에 넣었던 지석임이 밝혀졌다. 지석에는 피장자와 글쓴이의 이름이 있었는데, 글쓴이가 제주목사로 근무하던 기건(奇虔)이었으며, 현재 탁본이 전함.

(9) 안득경(安得敬), 순흥(順興) 안씨

① 가계: 시조 안자미(安子美)의 10세손.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398년(태조 7) 애월 어도리<sup>8)</sup>/1401년(태종 1) 한경 청수리<sup>9)</sup>/1450년(세종 32)<sup>10)</sup>.

③ 입도경위: 왕자의 난 때 이방번, 이방석 두 왕자가 살해되는 왕권투쟁을 보고 제주에 낙향, 은거.

④ 특이사항: 수의부위(修義副尉) 역임.

(10) 홍윤강(洪允康), 남양(南陽) 홍씨

① 가계: 시조 홍은열(洪殷悅)의 15세손. 조부 문하시중 홍언박(洪彦博).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402년(태종 2). 조천 조천리.

③ 입도경위: 1374년(공민왕 23) 공민왕시해사건 때 친척으로 있

7) 김봉현의 『제주도유인전』에는 유망(정치적 망명)과 유배 두 가지 설을 모두 기록하고 있으나, 담수계의 『증보탐라지』에는 유배라고 되어 있다.

8) 홍순만, 「제주의 입도조와 분묘」. 나주김씨제주종친회, 2004.

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대전'.

10)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1981.

는 홍윤(洪倫)·홍관(洪寬) 등이 주모자로 처형되고 홍사보(洪師普)·홍사우(洪師禹) 등이 유배되자 사재감의 벼슬을 사퇴하고 유랑길에 나섰다가 조선 건국 후 가족과 함께 낙향, 초천 조천리에 정착.

④ 특이사항: 사재감(司宰監) 역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 그의 묘소 소재.

(11) 김검룡(金儉龍), 경주(慶州) 김씨

① 가계: 경순왕의 넷째 왕자 안동군 김은열(金殷說)의 16세손. 부친 김인찬(金仁贊, 조선개국 일등공신).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403년(태종 3). 성산을 오조리.

③ 입도경위: 조선 초(정종 말기~태종 초) 감목사(監牧使)로 입도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403년(태종 3) 양마 6필을 경기도 양근현(楊根縣) 마유봉(馬遊峰)에 보내 헌마한 후 같은 해 제주도지관(濟州都知官)이 되었다는 기록이 전승됨. 이로 미루어 감목사라는 벼슬로 제주와 인연을 맺고 정의현 오조리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

④ 특이사항: 헌마공신 김만일(金萬鎰)은 그의 7세손.

(12) 김인충(金仁忠), 나주(羅州) 김씨

① 가계: 시조 김운발(金雲發)의 14세손.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403년(태종 3), 애월 고내리<sup>11)</sup>/우왕대(1374~1388)<sup>12)</sup>.

③ 입도경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제주도로 낙향.

④ 특이사항: 고려 말 강화진 좌령랑장(左領郎將) 역임. 후손 건공장군(建功將軍) 김성조(金成祖),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시 왜구 격퇴. 제주시 노형동에 ‘나주김씨입도조단소(羅州金氏入島祖壇所)’ 소재.

(13) 변세청(邊世淸), 원주(原州) 변씨 훈련공파(訓練公派)

1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12)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1981.

- ① 가계: (원 귀화) 시조 변안열(邊安烈)의 3세손.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405년(태종 5). 제주목 노형동.
- ③ 입도경위: 조부 변안열이 고려말 이방원에 의해 참살되자 손자로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피신하여 제주에 입도.
- ④ 특이사항: 고려 중랑장(中郎將), 조선 중훈대부(中訓大夫) 주학교수(州學教授) 역임. 후손 변경봉(邊景鵬, 대정현감) 1794년(정조 18), 갑인년 흉년 때 조정에 장계를 올리고 구휼미 1만5천석을 지원받아 백성들을 구제. 제주시 노형동 함박동(咸朴洞)에 그의 묘소 소재.

(14)姜允熙(姜允熙), 진주(晉州) 강씨(은열공파)

- ① 가계: 중시조 강민첨(姜民瞻)의 13세손.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418<sup>13)</sup>. 애월 납읍리
- ③ 입도경위: 양녕대군 폐출에 반대하다가 유배.
- ④ 특이사항: 형조좌랑, 대사헌 역임.

(15) 김안보(金安寶), 연안(延安) 김씨

- ① 가계: 시조 김섬한(金暹漢)의 8세손.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정종대(1398~1400)<sup>14)</sup>/ 15세기 초, 제주성 일도리<sup>15)</sup>.
- ③ 입도경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관직을 버리고 제주에 낙향. 처음 제주성에 은거.
- ④ 특이사항: 한림학사(翰林學士). 아들 김복수(金福壽) 때 화북2동 거로 마을로 옮겨 설촌.

1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고로 김봉현의 『제주도유인전』에는 진주강씨 제주 입도조가 ‘강철(姜哲, 水山派)’로 되어 있으며, 1506년(중종 1) 낙향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14)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1981.

15) 홍순만, 「제주의 입도조와 분묘」. 나주김씨제주종친회, 2004.

(16) 현사경(玄思敬), 연주(延州) 현씨

① 가계: 시조 현담윤(玄覃胤)의 9세손.

② 입도연대 및 지역: 태종(1403~1419) 때 추정. 현사경 아들 3 형제 중 장자 현수인(玄壽仁)은 제주시 거로(巨老), 차자 현부인(玄富仁)은 남원(南元), 삼자 현귀인(玄貴仁)은 성산(城山)에 거주.

③ 입도경위: 미상. 문중에는 그가 제주목사로 도입하였다가 되돌아가지 않고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

④ 특이사항: 제주목사 부임(?)<sup>16)</sup>, 조선 초 돈녕부 도정(都正) 역임.

이상 여말선초 16명의 입도조에 대해 그들의 가계 및 입도 연대, 지역, 경위 등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음의 <표 1>이다.

---

16) 현사경의 입도연대로 추정되는 태종대(1400~1419)의 제주목사는 총 8명으로 다음과 같다. 박덕공(朴德公), 이원항(李原恒), 조원(趙源), 정초(鄭初), 김정준(金庭雋), 윤임(尹臨), 오식(吳湜), 이간(李暎). 또한 현씨로 조선시대 제주목사에 부임했던 인물은 광해군 때의 현즙(玄楫, 재임: 1613~1616)만 확인된다. 따라서 현사경이 제주목사로 부임했다는 사실은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음.

〈표 1〉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현황17)

연번	성명	본관	입도연대	입도지역	입도이유	특이사항
1	김윤조 (金胤祖)	광산 (光山)	1368 (공민왕 17)	구좌 김녕리→ 한동리	정치적 망명 (김흥조, 신돈제거 모의발각 처형)	증조부: 김수(金須) 형: 김흥조(金興祖) 9세손: 김진용(金晉鎔)
2	진계백 (秦季伯)	풍기 (豐基)	1371 (공민왕 20)	애월 애월리	정치적 망명 (폐행 최만생, 홍륜 등과 불화)	이색의 문인 최영의 친족
3	좌형소 (左亨蘇)	청주 (靑州→ 淸州→濟 州)	고려말	구좌 한동리 (좌가장)	공무 수행 후 정착 (탐라 목마장 감목관 부임)	현손 때 세거지를 제주 서북부 지역(한경면 일대)으로 이거
4	김만희 (金萬希) 김경흥 (金景興)	김해 (金海)	1392 (태조 1)	애월 곽지리	유배(高麗遺臣/ 절의과)	(제주) 삼절신(三節臣) 15대손: 김만덕(金萬德)
5	한천 (韓崧)	청주 (淸州)	1392 (태조1)/ 1400 (정종2)	표선 가시리	유배(高麗遺臣/ 절의과)	(제주) 삼절신(三節臣) 목은, 포은과 교류
6	허손 (許遜)	양천 (陽川)	1392 (태조 1)	구좌 종달리	은둔 처사(高麗遺臣/ 절의과)	부친: 대제학 허흠(許欽) 형: 허정(許徵, 두문동 72현)
7	이미 (李美)	경주 (慶州) 익새공파	1401 (태종 1)	제주 외도동	유배(高麗遺臣/ 절의과)	(제주) 삼절신(三節臣) 형: 이신(李伸, 제주도안부사, 1420) 형의 육지행 권유 거부
8	강영 (康永)	신천 (信川)	1402 (태종 2)	조천 함덕리	유배(1398년, 1차 왕자의 난 정치적 망명)	종제: 신덕왕후 강씨 제주목사 기건(奇虔)의 지식
9	안득경 (安得敬)	순흥 (順興)	1398 (태조 7)/ 1401 (태종 1)/ 1450 (세종 32)	애월 어도리/ 한경 청수리	은둔 처사(낙향)	1차 왕자의 난
10	홍윤강 (洪允康)	남양 (南陽)	1402 (태종 2)	조천 조천리	은둔 처사(낙향)	조부: 문하시중 홍언박(洪彦博)

17) 남평문씨(南濟公派) 입도조 문작(文綽)은 여말선초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고려 중엽 무신집권기 때(1194년, 명종 24) 대제학으로 문교 선화를 위해 입도 후 정착.

연번	성명	본관	입도 연대	입도 지역	입도이유	특이사항
11	김검룡 (金儉龍)	경주 (慶州)	1403 (태종 3)	성산 오조리	공무 수행 후 정착 (감목사, 제주도지관 부임)	부친: 김인찬(金仁贊), 조선 개국공신 7세손: 현마공신 김만일(金萬鎰)
12	김인충 (金仁忠)	나주 (羅州)	1403 (태종 3)	애월 고내리	은둔 처사(낙향)	강화진 좌령랑장(左領郞將) 역임 후손: 김성조(金成祖), 을묘왜변(1555년, 명종 10)시 간공장군
13	변세청 (邊世淸)	원주 (原州) 훈련공 파	1405 (태종 5)	제주시 노형동	정치적 망명(변안렬의 손자)	조부: 변안렬(邊安烈), 고려말 삼도도원수(三道都元帥) 후손: 대정현감 변경봉(邊景鵬), 갑인년(1794, 정조 18) 대흥 때 구휼
14	강윤희 (姜允熙)	진주 (晉州) 은열공 파	1418 (태종 18)	애월 남읍리	유배(양녕대군 폐출 반대)	
15	김안보 (金安寶)	연안 (延安)	정종대/ 15세기 초	제주성 일도리	은둔 처사(낙향)	아들: 김복수(金福壽), 거로동(禾北二洞) 설촌
16	현사경 (玄思敬)	연주 (延州)	태종대/ 15세기 초	?	공무 수행 후 정착 (제주목사 부임?)	

### Ⅲ.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분석

이제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16명에 대해 그들의 입도연대 및 지역 그리고 입도이유에 대한 개략적 분석을 해보기로 한다. 먼저 입도조의 입도 연대는 서두에 여말선초 100년간으로 한정해서 살펴본다는 전제를 밝혔지만 대체로 다음의 세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공민왕대, 둘째 조선건국, 셋째 태종대였다.

공민왕대의 입도인은 김윤조와 진계백이다. 이 둘은 모두 공민왕 집권 후반기 권신인 신돈 및 최만생/홍륜 등과의 불화 때문에 정치적 피난처를 찾아 입도하였다. 김만희, 한천, 허손 등은 1392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절의를 숭상하며 고려유신으로 남기를 자처하여 유배되었거나 은둔처를 찾아 입도한 경우였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례는 태종대였다. 두 차례(1398, 1400) 왕자의 난을 거쳐 태종이 집권하자 혼란 정국을 피해 서울과 가장 먼 변방 제주로 은둔하여 처사처럼 지내려는 입도인들이 많았다. 안득경, 홍윤강, 김인충, 김안보 등이 그들이다. 또한 강영과 변세청은 각각 신덕왕후 및 변안열의 인척으로 태종과의 악연을 지녔던 인물들이다. 그 때문에 정치적 망명처를 찾아 제주로 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역시 태종의 관직 서용에 대해 고려의 신하임을 내세워 거부했다 제주로 유배되었다.

결국 공민왕 말기, 태종 집권 초기와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제주를 향한 입도인들은 정치적 망명처 또는 은둔 처사의 삶을 위해 들어온 것이었다. 또한 고려 멸망, 조선 건국이라는 왕조교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의를 지키며 불사이군의 고려유신(高麗遺臣)으로 남기를 자처하다 유배당해 제주로 향했던 인물도 있다.

입도조의 입도 지역은 대부분 제주섬 북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북동부 지역인 조천(강영, 홍윤강) 및 구좌(김윤조, 좌형소, 허손)에 5명, 북서부 지역인 외도/노형(이미, 변세청) 및 애월(진계백, 김만희, 안득경, 김인충, 강윤희)에 7명, 제주성안(일도리)에 1명(김안

보) 등 총 13명이 북부지역에 정착하였다. 남부지역은 2명이 정착하였는데, 성산(김검룡), 표선(한천)의 남동부지역이었다. 이 외에 미상 1명(현사경)이 있다.

결국 대다수의 입도조들은 제주목관아로부터는 일정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육지와 왕래를 염두에 두어 북부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리라 판단한 듯하다. 물론 당시로서는 제주에서도 오지일 수 있는 성산 오조리나 표선 가시리에 정착하여 속세와 절연하려는 의도가 강한 입도조도 소수 있었다.

입도조의 입도 이유는 대체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유배인, 둘째 정치적 망명, 셋째 은둔 처사, 넷째 공무수행 후 정착이다. 유배인과 정치적 망명은 대부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연고도 없는 먼 변방 제주로 입도한 경우이다. 이에 반하여 공무수행 후 정착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의지가 담긴 입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은둔 처사형의 삶을 위한 입도는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과 동떨어진 먼 변방을 스스로 선택하여 들어온 자의적 입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결국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들은 ‘타의반 자의반’의 성격으로 이해된다. 이들에게 제주는 형극의 길이기도 또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가는 도전의 길이기도 했다.

첫째, 유배인 입도조이다. 유배인들은 양심에 반하는 타협을 거부하며 새로운 권력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 의해 강제로 제주에 입도한 경우이다. 김만희, 한천, 이미, 강윤희의 4명으로 확인된다. 김만희와 한천은 조선 건국과 더불어 유배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와 강윤희는 각각 태종 초기와 말기에 제주에 유배되었다. 또 김만희와 이미는 각각 태조와 태종 초 출사를 종용 받았으나 고려의 신하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가 유배된 경우이며, 한천은 건국초 성석린(成石麟), 이원굉(李元紘) 등과 더불어 고려의 신하라는 이유로 유배되었다.<sup>18)</sup> 강윤희는 양녕대군 폐출을 반대하다

---

18) 『고려사』 권46, 공양왕 4년 7월. “회빈문 밖에서 단양군 우성범과 진원군 강회계를 베었다. 태조(이성계)가 그것을 듣고 대노하여 중지시켰으나 시간이 늦었었다. 찬성사 성석린과 정당문학 이원굉, 청성군 강시,

제주로 유배되었다.

둘째, 정치적 망명의 입도조이다. 정치적 망명은 본인 및 친족이 역시 권력 실세와 대립각을 세우다 화가 미치기 전에 먼 변방으로 피난처를 찾아 제주에 들어온 경우이다. 김윤조, 진계백, 강영<sup>19)</sup>, 변세청의 4명으로 확인된다. 김윤조와 진계백은 고려말 공민왕 때이며, 강영과 변세청은 조선 태종 때이다.

김윤조와 진계백은 모두 공민왕 집권 후반기 권신들과의 불화로 말미암아 정치적 피난처를 찾아 입도하였다. 김윤조는 김홍조의 동생인데, 형인 김홍조가 공민왕대 권신 신돈을 제거하기 위해 모의하던 중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되었다.<sup>20)</sup> 결국 김윤조는 신돈의 추가

예문관대제학 한천, 밀직제학 성석용을 귀양 보냈다(斬丹陽君禹成範晉原君姜淮季于會賓門外 我太祖聞之大怒止之不及 流贊成事成石麟 政堂文學李元紘 靑城君姜善 藝文館大提學韓藏 密直提學成石塔).”

- 19) 유배인 입도조 5명 중 강영은 태종 때 유배로 들어 왔는지, 정치적 망명의 피난처로 입도했는지 불분명하다. 유배인의 신분으로 입도한 사실이 종친회를 비롯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록을 비롯한 사료에서 고증할 수 없다. 오히려 필자는 태종의 치세와 멀리 떨어진 제주로 자발적인 정치적 망명을 꾀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그 근거는 입도시점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즉 신덕왕후 강씨의 사망은 1396년이요, (사촌) 외조카인 이방번, 이방석 두 왕자가 살해당하는 1차 왕자의 난은 1398년의 일이었다. 강영의 제주 입도 시점이 1402년이 맞다면 그로부터 4년 전후의 기간이 경과된 뒤에 입도한 것이다. 따라서 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뒤에 강영을 유배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 20)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7년 10월. “1368년 10월. 전 밀직부사 김정이 김홍조, 조사공, 유사의, 김제안, 김귀보, 이원립, 윤희종 등과 모의하여 당시 권신이던 신돈을 베어 죽이기로 하고 비밀리에 암살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사실을 조사공이 자기와 친한 전 홍주목사 정운에게 누설했다. 정운은 또 자기와 친한 제학 한천에게 알렸고, 한천은 정운과 더불어 평소 잘 알고 있는 시중 이춘부에게 알려 이춘부로 하여금 왕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왕은 즉시 그들 모두를 순군옥에 가두고 모두 곤장을 쳐서 귀양 보냈다. 그러나 신돈은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 김정, 김홍조, 조사공, 유사의 등을 뒤쫓게 하여 도중에서 그들을 목을 매어 죽게 하였다(殺前密直副使金精 金興祖 趙思恭 俞思義等 初精等 與金齊顏 金龜寶 李元林 尹希宗等 謀誅(辛)吨 思恭洩謀於所善 前洪州牧使鄭暉 暉與提學韓藏 告侍中李春富 春富入告王 乃命

보복을 피해 바다 건너 제주에 들어왔다. 진계백 역시 공민왕 말기 자제위(子弟衛) 소속으로 충애를 받던 홍륜, 최만생 등과 불화를 빚어 정치적 망명처로 제주를 택했다.<sup>21)</sup>

강영은 신덕왕후 강씨의 종형이요, 이방번/이방석 두 왕자의 외종숙이었다. 태종이 두 왕자를 제거하는 1398년(태조 7) 왕자의 난으로 강영은 태종과 꺾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변세청은 변안열의 손자인데, 변안열은 1389년(창왕 1) 김저(金佇) 등이 이성계 세력을 제거하고 우왕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되어 이림(李琳), 우현보(禹玄寶), 이색(李穡) 등과 함께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사형된 인물이었다. 따라서 강영과 변세청은 태종이 집권하면서 그와 가급적 멀리 떨어진 제주로 정치적 망명의 길을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은둔처사의 삶을 위해 제주를 찾은 입도조는 5명으로 추정된다. 허손, 안득경, 홍윤강, 김인충, 김안보가 그들이다. 이 중 허손은 건국 직후, 나머지는 태종 즉위 전후에 입도한 것으로 전한다. 따라서 은둔 처사를 지향하게 된 외적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다. 즉 허손은 부친(허흠)과 형(허징)이 고려절신으로 순국하거나 두문동 72현이 된 인물들이어서 본인 역시 절의 정신에 입각한 고려의 신하로 살아가기 위해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동일한 이유로 유배를 당해 제주에 입도한 김만희, 한천, 이미와 ‘타의냐, 자의냐’의 상황만 달랐을 뿐이다. 나머지 4명은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거쳐 즉위한 태종의 집권을 목도하면서 건국 초 혼란한 정국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처사의 삶을 위해 자의로 제주를 택한 경우이다.

하필이면 바다 건너 제주까지 들어 온 당시 이들의 입도를 오히려 오늘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임시방편, 현실도피, 유유자적의 모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듯하다. 정국이 편안해지면 다시 중앙 무대로 돌아가야지 하는 의도로 입도한 것은 아닌 것이다. 임시방편

---

繫巡軍獄 並杖流于外 晦迫遣人於路 皆縊殺之.)”

21) 진계백과 홍륜, 최만생과의 불화와 관련된 사실은 정사(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의 이유였다면 굳이 바다 건너 변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또한 혼란한 정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삶 또는 그런 세계보다는 오히려 양심을 지키며,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당당히 살아가려는 삶을 그리며 입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를 택한 그들에게 현실도피의 모습보다는 도전정신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는 조명이 옳을 듯하다. 더구나 모든 것이 갖춰진 안락한 기반 위에 유유자적하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척박한 토질과 삼재(三災)라는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고 견뎌내야 하는 삶을 인지하며 입도했다는 점이다.

넷째, 공무수행 후 정착한 입도조이다. 좌형소, 김검룡, 현사경의 3명으로 추정된다. 좌형소는 고려말, 김검룡과 현사경은 조선 태종 때 입도하였다. 이 중 좌형소와 김검룡은 탐라(제주) 목마장의 감목관 또는 감목사로 부임한 뒤 제주에 정착하였으며, 현사경은 제주목사를 부임한 뒤 그대로 제주에 머물렀다고 전한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가승(家乘)의 기록 외에 사서 및 역사지지를 포함한 문헌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sup>22)</sup>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의 제주 유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그 기준은 다소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객관적 정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입도조 내면적 요인에 의한 주관적 정황에 초점을 맞추면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도 있다. 타의에 의한 고난의 길과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선 자발적 의지의 소산이 그것이다. 즉 유배인 및 정치적 망명은 타의에 의해 변방을 쫓기듯 입도한 경우이며, 은둔 처사의 삶 및 공무수행 후 정착은 자발적 입도의 경우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들의 입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이들의 지위와 조건이다. 제주 입도조들은 대부분 양반으로 일정의 학문적 소양과 중앙에서의 신문물 경험치를 지닌

22) 필자는 이들의 관력(官歷)과 관련해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 정사는 물론 (신증)동국여지승람, 다수의 탐라지리지 및 검색 가능한 개인 문집 등을 뒤졌으나 고증할 대목을 찾을 수 없었다.

존재들이었다. 거기다가 이들은 입도할 때 나름의 경제적 기반까지 수반해 왔으리라 여겨진다. 전근대 신분제 사회에서의 양반은 실제 노동은 하지 않지만 농업 경영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존재이다. 중국과의 교류 및 문물 섭취도 인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질병 치료에 대한 의학적 상식까지 구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입도는 제주에 새로운 사회 영역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척박한 제주의 자연환경과 기후 조건을 생활화하고 나름의 전통 관습을 지닌 토착 제주인에게는 이질적인 집단의 등장이었다.

제주의 토호 세력 및 민간은 초기에는 이들을 향해 경계의 시각으로 접촉했겠지만, 점차 그들이 영주(永住)를 목표로 생활해가는 모습을 보고는 상호 정보 교류 등 영향을 주고받으며 제주 사회문화의 상승을 함께 꾸려가지 않았나 생각된다. 더구나 이들은 단기간 지배층으로서 잠시 머물다 떠나는 목민관이 아니었다. 제주에 정착하고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하며 후손이 대를 이어가며 차차 제주 사람이 되어 갔다. 이를 보면서 당시 토착의 제주 사회는 이들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의 접촉과 수용, 흡수와 통합 등 나선형적인 발전을 이루며 새로운 제주 문화를 탄생시켜가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 IV. 맺음말

여말선초 제주에는 육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정착하여 후손을 남겼다. 이들을 제주에서는 입도조(入島祖)라 부른다. 입도조란 본관이 제주인 고, 양, 부 삼성(三姓) 이외의 타 성씨가 제주 섬 이외의 지역 및 국가에서 제주로 처음 들어와 정착하여 살며 후손(혈족)을 남기고 그들이 대대로 제주에 거주하며 가문을 이루었을 때의 시조이다.

여말선초 제주에 들어와 입도조로 조명되는 인물은 대략 16명으로 파악되며 다음과 같다. 광산김씨 김윤조(金胤祖), 풍기진씨 진계

백(秦季伯), 제주좌씨 좌형소(左亨蘇), 김해김씨 김만희(金萬希), 청주한씨 한천(韓葳), 양천허씨 허손(許遜), 경주이씨 이미(李美), 신천강씨 강영(康永), 순흥안씨 안득경(安得敬), 남양홍씨 홍윤강(洪允康), 경주김씨 김검룡(金儉龍), 나주김씨 김인충(金仁忠), 원주변씨 변세청(邊世淸), 진주강씨 강윤희(姜允熙), 연안김씨 김안보(金安寶), 연주현씨 현사경(玄思敬).

이들은 대체로 고려 공민왕대, 조선건국 전후, 조선 태종대에 집중적으로 입도하였으며 그 지역은 대부분 제주섬 북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입도조의 입도 이유는 첫째 유배인, 둘째 정치적 망명, 셋째 은둔 처사, 넷째 공무수행 후 정착의 네 유형으로 구분 가능했다. 유배인과 정치적 망명은 대부분 타의에 의해 먼 변방 제주로 입도한 경우이다. 이에 반하여 공무수행 후 정착과 은둔 처사형의 삶을 위한 입도는 제주에 스스로 선택하여 들어온 자의적 입도로 이해했다.

한편 입도조들의 입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은 바로 그들의 지위와 조건이었다. 학문적 소양, 신문물 경험치의 양반들이었으며, 당연히 경제적 기반까지 수반하여 입도하였으리라 보인다. 척박한 제주의 자연환경과 기후 조건을 생활화하고 나름의 전통 관습을 지닌 토착 제주인에게는 이질적인 집단의 등장이었다. 하지만 제주인들은 그들이 제주에 정착하고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하며 후손이 대를 이어가며 차차 제주 사람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호 정보 교류 등 영향을 주고받으며 제주 사회문화의 상층을 함께 꾸려가지 않았나 생각된다. 바야흐로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의 접촉과 수용, 흡수와 통합 등 나선형적인 발전을 이루며 새로운 제주문화를 탄생시켜가는 힘의 원천을 볼 수 있는 지점이었다.

## 참고문헌

### 1. 사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남사록』 (김상헌), 『남환박물』 (이형상), 「서재  
한공유허비(문)」 (최익현),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증보탐  
라지』 (윤시동), 『증보탐라지』 (담수계), 『탐라지』 (이원진), 『탐라지초  
본』 (이원조).

### 2. 단행본 및 논문

- 고창석, 1985, 「원명 교체기의 제주도」, 『탐라문화』 (4).  
국사편찬위원회, 1993~1995, 『한국사』 (19~23).  
김봉옥, 2013, 『제주통사』, 제주발전연구원.  
김봉현, 1981(1956 저술), 『제주도유인전』, 국서간행회.  
김석익, 1918, 『탐라기년』, 영주서관.  
김일우, 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김찬흠, 2002,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김찬흠, 2009, 「각 성씨관향별 낙향유래와 분파이름」, 『제주특별자치도』  
(113).  
김창현, 2010, 「탐라의 지배층」, 『탐라사』 (Ⅱ).  
김태능, 1982,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신천식, 2004,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학맥』, 경인문화사.  
양진건, 1990, 「제주 유배인의 개화교학활동연구」, 『민족문화연구』 23.  
양진건, 1996, 「탐라국의 유학 수용 연구」, 『한국교육사학』 18집.  
제주도지편찬위원회, 1996, 『제주도지』 1, 제주도.  
제주문화원, 2005, 『역주증보탐라지』.  
제주유맥옥백년사편찬위원회, 1997, 『제주유맥옥백년사』.  
홍기표, 2017, 「여말선초 청주한씨 제주입도조 한천 재조명」, 『탐라문화』  
(55).  
홍순만, 2004, 「제주의 입도조와 분묘」, 나주김씨제주도총친회.  
홍순만, 2008, 『제주에 선비의 얼을 심은 고려유신 한천』, 남제주문화원.  
홍영의, 2005, 『고려말 정치사 연구』, 혜안.

3. 홈페이지

고영철, 고영철의 역사교실(<http://www.jejuhistory.c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222.grandculture.net/>).

Abstract

A Study on Jeju(濟州) Ipdojo(入島祖)  
in the end of the Koryeo Dynasty and Early Chosun  
Dynasty

Hong, Ki-Pyo\*

In the end of the Koryeo dynasty and early Chosun dynasty, many people settled down Jeju island from the land and left descendants.

They were called 'Ipdojo' in Jeju. In more detail, they are the progenitor from other region or country, who have different family name from that of indigenous clans of Jeju(Go, Yang and Bu). They left descendents and had resided in Jeju for generations.

Sixteen people are counted as Ipdojo approximately. They are as in the following. Kim yunjo(金胤祖)-'Gwangsan Kim'(family clan)/ Jin gyebaek(秦季伯)-'Pung-gi Jin'/ Jwa hyungso(左亨蘇)-'Jeju Jwa'/ Kim manhui(金萬希)-'Kimhae Kim'/ Han cheon(韓蕝)-'Cheongju Han'/ Heo son(許遜)-'Yang-cheon Heo'/ Lee mi(李美)-'Gyeongju Lee'/ Kang yeong(康永)-'Sincheon Kang'/ Ahn deuk-kyung(安得敬)-'Sunhong Ahn'/ Hong yunkang(洪允康)-'Namyang Hong'/ Kim gum-yong(金儉龍)-'Gyeongju Kim'/ Kim inchung(金仁忠)-'Naju Kim'/ Byun Secheong(邊世淸)-'Wonju Byun'/ Kang yunhui(姜允熙)-'Jinju Kang'/ Kim ahnbo(金安寶)-'Yeonahn Kim'/ Hyun sa-gyeong(玄思敬)-'Yeonju Hyun'.

---

\* Former adjunct professor, Dept. of History, Sungkyunkwan University

Most of these people came into Jeju island in the era of king Gong-min(Koryeo dynasty), around the establishing Joseon dynasty and in the era of king Taejong(Joseon dynasty). Generally, they located in northern part of the island. These are the reasons of their coming into the island. First of all, banishment. Secondly, political asylum. Thirdly, life in seclusion. Finally, settlement after the execution of their official duty. First two cases were usually enacted against their will. Last two cases, whereas, were self-determined cases.

**Keyword : end of the koryo dynasty and early chosun dynasty(麗末鮮初), Jeju(濟州), Ipdojo(入島祖), exile(流配人).**

교신: 홍기표 630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정2길, 3-4  
(E-Mail: hkp6236@naver.com )

논문투고일: 2018. 01. 15.

심사완료일: 2018. 02. 02.

게재확정일: 2018. 02. 05.